

1.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이 아닌 것은?

- ① 퇴직보험계약
- ② 날씨보험계약
- ③ 재보험계약
- ④ 비용보험계약

2.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선박보험계약
- ② 생명보험계약
- ③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보험업법상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다.
- ② 최저자본금액은 20억원이다.
- ③ 보험금의 상한액은 5천만원이다.
- ④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1,000억원이다.

4.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보험사기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② 국가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순서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 ② 보험회사의 회계부서 직원
- ③ 보험회사의 감사
- ④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6.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할 때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보험중개사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7.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④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보험업법상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외)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명보험: 200억원
- ②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100억원
- ③ 화재보험: 100억원
- ④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9. 보험업법상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
- ② 금융위원회
- ③ 보험개발원장
- ④ 금융감독원장

10.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 ③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 ④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험자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③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와 별도의 서면으로 성립되는 요식계약이다.
-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분납보험료 1회분 중 일부만 받은 때에도 낙부통지 의무가 있다.

12.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닌 경우는?

-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사고의 객관적 확정을 알지 못한 때
- ② 보험계약자만 사고의 객관적 확정을 알지 못한 때
- ③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 사고의 객관적 확정을 알지 못한 때
- ④ 보험자만 사고의 객관적 확정을 알지 못한 때

13. 다음 열거한 것 중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은?

- ① 위험급수가 높은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에도 그 위험상태를 유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② 보험가입 당시에 이륜차를 운행하던 피보험자가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계속 운행하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기간 도과 후에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즉시 연금계약상 사망보험금의 법률적 성질은 상속재산이며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14. 상법상 기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손해보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기평가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한 그 협정보험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도 기평가보험이다.
- ④ 협정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다룰 수 없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실손보상 급부형태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대하여 중복 보험에 관한 상법과 약관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실손의료보험계약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도 실손보험금지급 대상이다.
- ③ 화재보험계약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 대한 지배는 임대차계약과 달리 숙박업소 주인에게 있으므로 객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는 주인에게 귀속한다.
- ④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며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

16.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①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 해지한 경우
- ②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고 다른 약정이 없는 때
- ③ 위험변경증가로 인한 해지시
- ④ 계속보험료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17. 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재산상의 손실이다.
- ② 재보험은 원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담보하게 되므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이며 기업보험이다.
- ③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직접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상법의 적용이 명문으로 배제되고 있다.
- ④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유효하다.

18. 상법상 보험자가 가지는 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을 당연히 해지된다.
- ②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았지만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해태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경우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상법상 해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해상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③ 해상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그 지체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해상보험자는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하였으나, 선박이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원래의 항로로 돌아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20. 보험설계사 갑은 2024년 1월 3일에 남편인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였다. 보험수익자는 을의 어머니인 병으로 하였다. 2024년 6월 30일에 을은 조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상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갑이 A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후 1월 내인 2024년 2월 2일에 을에게서 사후적인 추인을 받았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② 을이 심신상실자인 경우 을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 ③ 을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을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을의 사망 전에 갑이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을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보험자는 갑의 보험금지급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21. 상법상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제2차적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③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2. 상법상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23. 상법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사고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
-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상당한 최고기간 내에도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③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증권을 소지한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

24.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재란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고 불은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을 말한다.
- ③ 집합보험의 경우라면 보험기간중에 그 목적물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 손해의 산정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상법은 화재보험에서 수개의 독립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집합보험이라 한다.

25.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타인은 당연히 그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 ②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③ 보험계약자는 위임받지 않으면 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④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6.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모두 소멸시효는 2년이다.
-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료청구권과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 ③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보험료 청구권의 모든 소멸시효는 3년이다.
- ④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27. 손해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②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발생시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멸실되어도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보상책임을 진다.
-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도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28. 운송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고가 수하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 ②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③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어야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 ④ 운송물 보험의 경우 도착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이 보험가액이다.

29.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 ② 하물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기간은 선적 착수 시에 개시한다.
- ③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은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종료한다.
- ④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 착수시에 개시한다.

30.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④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1. 다음 중 민영보험으로 담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험만을 열거한 것은?

- ① 순수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위험
- ② 객관적 위험, 순수위험, 근본위험
- ③ 투기적 위험, 정태적 위험, 근본위험
- ④ 객관적 위험, 동태적 위험, 특정위험

32. 다음 중 대수의 법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보험의 특성은?

- ① 손실의 분담
- ② 손실의 보상
- ③ 위험 집단화
- ④ 위험의 전가

33. 다음 중 손실의 규모는 크지만 빈도가 낮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은?

- ① 위험통제(risk control) - 위험회피(risk avoidance)
- ② 위험통제(risk control) - 손신통제(loss control)
- ③ 위험재무(risk financing) - 위험보유(risk retention)
- ④ 위험재무(risk financing) - 위험전가(risk transfer)

34.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가치 상승
- ② 위험의 예방 혹은 축소
- ③ 이윤의 변동폭 증가
- ④ 세금 절약

35. 다음 중 보험에 가입한 후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해 부주의해지는 경향과 관련된 것은?

- ① 도덕적 위태(moral hazard)
- ② 정신적 위태(morale hazard)
- ③ 법률적 위태(legal hazard)
- ④ 물리적 위태(physical hazard)

36. 다음 중 재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설계는 고객의 재무목표 설정, 재무상태 분석, 재무설계안 작성 및 실행 그리고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 ② 재무설계는 고객의 재무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므로 비재무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재무설계안을 작성할 때 고객의 투자위험성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재무설계는 미혼기, 가족생활기, 노후생활기 등 고객의 생애주기 별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37. 자신의 저축 2억 원으로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6억 원에 구입했을 때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s)을 바르게 계산한 값은?

- ① 400%
- ② 300%
- ③ 200%
- ④ 100%

38.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예상되는 경제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 ②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한다
- ③ 기업투자가 증가한다
- ④ 저축이 증가한다

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중 아래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권유 없이 보장성 상품 계약체결을 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계약체결목적 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를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 ① 적정성의 원칙
- ② 적합성의 원칙
- ③ 설명의무
- ④ 부당권유행위 금지

40. 아래 사례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적용되는 과세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 홍길동의 사망당시 유가족 및 보험관계 >

- 유가족 : 홍길동의 배우자 김영희, 아들 홍진수
- 계약자 및 수익자 : 홍진수
- 피보험자 : 거주자 홍길동
- 사망보험금 : 2억
- 보험료납부 : 납입된 1,000만원 가운데 김영희가 400만원, 홍진수가 600만원을 납부함

- ① 보험금 2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 ② 보험금 1억2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③ 보험금 8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④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